



SARAZING

탐방기 02

토론토의 거실

건축사 인터뷰 03

따뜻한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사의 시선 _ 이주경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샘터)

광주 지역 뉴스 04-05

제30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공모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간담회 개최

광주건축사회, 광주교육청 '건설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청렴간담회'

전남 지역 뉴스 06-07

전라남도건축사회, 역대 회장 정담회 및 친선골프대회 개최

전남·광주건축사회, 김대중 교육감 선거캠프 방문

2026년 전라남도 건축관계자 워크숍 개최

전북 지역 뉴스 08-09

전북도 감사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청렴 거버넌스 간담회 개최

전주지역건축사회, 불공정 계약 개선 및 설계대가 정상화 방안 포럼 개최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제32회 졸업작품전 개최

종합 10

설계의도구현, 건축의 가치를 완성하다.

설계공모 11

청계면 도시재생 두:드림 스토어 신축공사 건축 설계공모

독자광장 12

한 편의 시 _ 꽃잎의 시간

한 장의 사진 _ 토론토 시청사 및 네이션 필립스 광장(Viljo Revell, 1965)

책 소개 _ 풍경으로의 건축



건 축 문 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6.6월호(199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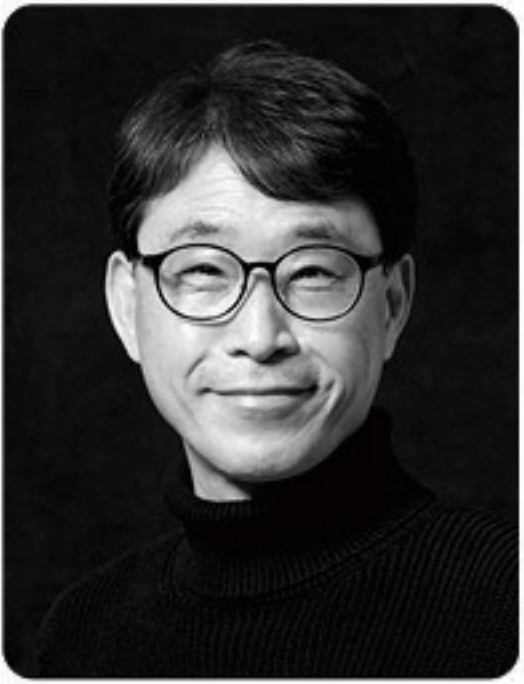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토론토의 거실



이동희 논설위원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todonghee@hanmail.net

- 1982~1985
영월공업고등학교 건축과
- 1986~1994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1994~1999
오이타대학 대학원 석사
및 박사
- 2002~2005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 2005~현재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2010~2011
펜실베이니아대학 방문교수
- 2015~2019
순천시·구례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센터장
- 2022~현재
대한건축학회 사진연구회 회장
- 2023~현재
한국농촌건축학회 부회장
- 2026~현재
국립순천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

2026년 5월 캐나다에 다녀왔다. 1999년 11월과 2010년 6월에 이은 세 번째 방문이다. 서울에서 토론토까지 비행시간 14시간... 도착하자마자 지친 몸을 쉴 새도 없이 7박8일 일정으로 숨 가쁘게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많은 풍경과 사람을 만났다. 시차 적응이 안 돼 몽롱한 상태에서 처음 찾아간 곳은 바로 '토론토 시청사(Toronto City Hall, 1965)'. 1957년 국제설계경전에서 핀란드 건축가 '빌요 레벨(Viljo Revell, 1910~1964)'의 계획안이 당선되어 건립된 것으로, 토론토의 랜드마크이자 현대건축의 걸작으로 회자되는 작품이다. 두 개의 곡선형 타워가 중앙의 원형 의회실(Council Chamber)을 감싸는 독특한 형태를 띠며, 하늘에서 보면 마치 눈동자와 눈꺼풀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다. 타워는 동쪽이 27층 서쪽이 20층으로 높이가 서로 달라서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또한 타워 사이에 놓인 하얀 의회실 건물은 마치 지상에 사뿐히 내려앉은 비행접시(UFO) 같은 느낌을 준다.

빌요 레벨은 핀란드 모더니즘 건축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되며, 토론토 시청사를 설계함으로써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청사 완공 10개월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해 자신의 대표작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는 일찍이 헬싱키공과대학에서 인연을 맺은 선배 건축가 '알바 알토(Alvar Aalto, 1898~1976)'의 조수로 활동했으며, 알바 알토가 주도한 1937년 파리 만국박람회 '핀란드관(Finnish Pavilion)'의 설계 및 시공 업무(Assistant)에도 참여했다. 그런 이유로 빌요 레벨의 설계가 초기에는 알바 알토의 영향을 받은 바 있지만, 1940년대 이후에는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하여 알토의 유기적이고 인본적인 건축과 달리 기술적이고 도시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 구체적으로, 알바 알토가 자연과 인간과 재료의 감성을 중시하면서 자연과의 조화, 곡선적 형태, 목재를 주로 활용했다면, 빌요 레벨은 도시와 기술과 조형성을 중시하면서, 도시의 상징성 강조, 조각적 형태, 콘크리트와 유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토론토 시청사 바로 앞에는 빌요 레벨의 또 다른 설계 작품인 '네이션 필립스 광장(Nathan Phillips Square, 1965)'이 조성되어 있다. 당시 국제설계경기를 추진했던 '네이션 필립스(Nathan Phillips, 1892~1976)' 제52대 토론토 시장(1955~1962 재임)의 업적을 기려 그의 이름을 그대로 광장 명칭으로 삼은 곳이다. 광장을 둘러볼 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TORONTO"라는 대형 LED 조명 사인으로, 2015년 범아메리카 경기대회를 계기로 설치되었다.

그 바로 앞에는 '거울 연못(Reflecting Pool)'이 조성되어 주변의 건축물 풍경을 담아내고 있으며, 겨울에는 대형 스케이트장으로 변모한다. 거울 연못 상부에는 '자유의 아치(Freedom Arches)'라는 세 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토론토 시청사의 곡선형 타워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영국의 조각가 '헨리 무어(Henry Moore, 1898~1986)'의 작품인 '더 아처(Three-Way Piece No. 2: The Archer, 1966)'도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토론토 시청사와 네이션 필립스 광장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공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설계한 것이다. 매년 1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토론토의 핵심공간으로서, 시청사의 곡선 타워와 원형 의회실이 독특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방문자의 수직적 시선을 잡아끌고, 광장의 조명 사인과 거울 연못 그리고 조각작품이 볼거리를 만들어 사람들의 수평적 활동을 유도한다. 이곳은 1965년 완공 이후 60년이 넘도록 계절과 날씨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며, 토론토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담아내는 '도시의 거실(Living Room of the City)'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이면에는 박제된 오브제(Objet)로서의 시청사 기능을 고수하기보다 직접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광장 기능에 중점을 두어, 시민들이 축제, 공연, 집회, 시위, 운동, 휴식 등을 통하여, 도시의 기억을 축적해 가는 무대로 만들려고 한 건축가의 꿈이 서려 있다. '건축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완성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청사를 건립한다고 하면, 먼저 시장이나 공무원을 위한 거대하고 상징적인 행정업무용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그 전면부나 주변부에 방문자를 위한 광장(마당)이나 공원 등을 형식적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건물보다 광장이 먼저 경험되며, 행정보다 생활이 우선되고, 시장보다 시민이 먼저 보인다. 즉 '권력의 건축'이 아닌 '시민의 건축'으로서, 건축물보다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이 담기는 광장(Public Value)이 우선된다. 이제 토론토 시청사와 네이션 필립스 광장은 매년 약 1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캐나다의 중요한 문화적 상징(Icon)이 되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수시로 지나가고 머무르며 저마다의 '풍경'과 '추억'을 쌓아가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안개가 피어오르는 아침의 신비함, 비가 내리는 점심의 부산함, 눈으로 덮인 오후의 고즈넉함, 그리고 화려한 축제의 밤... 사람들은 이곳에서 그런 풍경들과 마주하며 자신만의 토론토 일기를 써 내려갈 것이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편집인 임현정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허만수
전담기자 김종문
편집위원 정영진, 김미리, 김종원, 강성구, 최기성, 설혜순, 오선화,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6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500,000원
- 하단광고 : 250,000원
- 하단명함광고 : 15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6 / gjkira@empas.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따뜻한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사의 시선

건축사사무소 샘터 이주경 건축사와의 만남



이주경 건축사(전남)

건축문화사랑 '건축사 인터뷰'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건축사들의 걸어온 이야기를 전한다. 삶의 에피소드와 건축사사무소 창업기 및 앞으로의 포부를 동료이자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전하여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Q. 건축사사무소 이름명을 만들 때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건축사사무소 샘터'라는 이름은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모습을 뜻하는 '샘터'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떠한 것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어지는 근원이라는 의미처럼, 저희 사무실 역시 안전한 건축과 좋은 인연,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와 삶의 가치를 전해온 월간지 『샘터』의 이름에서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공감과 위로로 전하는 그 이름처럼, 저희가 만드는 건축 또한 단순한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의미 있는 가치를 전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무실 이름처럼 사람과 공간을 진정성 있게 연결하는 건축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 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실무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업무 환경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성 건축사이자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수주 경쟁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아직까지 업계에는 경험이나 실력 외적인 부분으로 판단받는 분위기가 일부 남아 있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공서 인허가 업무 과정에서 담당자가 변경될 때마다 법규 해석이나 요구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같은 법규 안에서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 업무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건축사와 건축주 모두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 기준이 마련된다면 실무 현장의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사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분위기도 일부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물론 서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 과정은 필요하지만, 행정기관과 건축사가 상호 협력의 관계로 존중받으며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은 한 사람의 작업이 아니라 건축주, 행정기관, 시공사 그리고 건축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이고 상호 존중이 기반이 되는 업무 환경과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디자인이나 설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지 만약 디자인이나 설계도면이 구상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건축은 단순히 형태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시간과 감정을 담아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간의 쓰임과 동선, 채광, 주변 환경 등을 함께 고민하며 설계하려고 노력합니다.

디자인이나 도면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처음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건축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과 공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건축 잡지나 다른 건축사들의 작품과 사례들을 보면서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생각에 머무르기보다 좋은 건축물을 꾸준히 보고 배우는 과정 역시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좋은 건축은 화려함보다 사람들에게 오래 편안하게 남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건축을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본인이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축물이나 건축가 있으실까요?

제가 학생때부터 좋아하는 건축가는 Richard Meier입니다.

리처드 마이어의 건축은 단순하면서도 정제된 공간 구성이 돋보이며, 자연광을 활용하는 방식 또한 매우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흰색을 중심으로 한 절제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전달하는 분위기와 깊이감이 매우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축물은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주빌리 교회(Jubilee Church)'입니다. 곡선 형태의 하얀 벽체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만들어내는 공간감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이러한 빛의 활용 방식은 국내의 강릉시립미술관 솔움에서도 유사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건축물 모두 자연광을 공간 내부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가 변화한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시간과 날씨, 그리고 빛의 양에 따라 공간이 보여주는 시각적 이미지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 역시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 사람의 감정과 공간의 분위기까지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는 형태만을 강조하는 건축보다는 사람과 환경, 그리고 빛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사가 되고자 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규모의 성장에만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좋은 건축물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건축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보다는 신뢰와 경험이 쌓이면서 가치를 인정받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프로젝트 한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하며 저만의 건축 철학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최근 건축업계는 AI 기술의 발전과 건축법 및 각종 제도의 강화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업무의 복잡성이 커지고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인 사무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설계만 잘하는 것을 넘어 법규 검토 능력, 행정 대응 능력, 고객과의 소통 능력, 그리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큰 프로젝트만 바라보기보다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작은 프로젝트라도 성실하게 수행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건축사의 가장 큰 자산은 화려한 포트폴리오보다도 '이 건축사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선·후배 그리고 동료 건축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화하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공간에 담아내는 일은 여전히 건축사의 몫입니다. 꾸준히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며 자신만의 강점을 만들어간다면 개인 건축사사무소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흥산업고 실습동



선원동 브라운스톤



장평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부새마을금고 여도지점

강진주택

임경희 건축사 / 이우 건축사사무소
광주 남구 천변좌로370번길 8-1, 지하층
Tel. 062-675-3335



대지위치 : 전라남도 강진읍 서성리 191-1 / 대지면적 : 155㎡ / 건축면적 : 84.82㎡ / 연면적 : 154.10㎡
주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라임스톤 (화이트), 징크판넬, 노출 COM



강진주택은 주변의 단독주택과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주거지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가족의 일상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외부는 징크 패널과 밝은 톤의 석재를 조합해 단순하면서도 입체감 있는 디자인을 구현하였으며, 담장과 게이트를 통해 외부 시선으로부터 독립적인 생활환경을 확보하였다.

내부 공간은 채광과 개방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대형 창호를 통해 풍부한 자연광이 실내 깊숙이 유입되도록 계획하였으며, 거실·식당·주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개방형 구조를 적용하여 가족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생활 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기존 수목과 조경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주거환경을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높이와 볼륨의 조합을 통해 단조롭지 않은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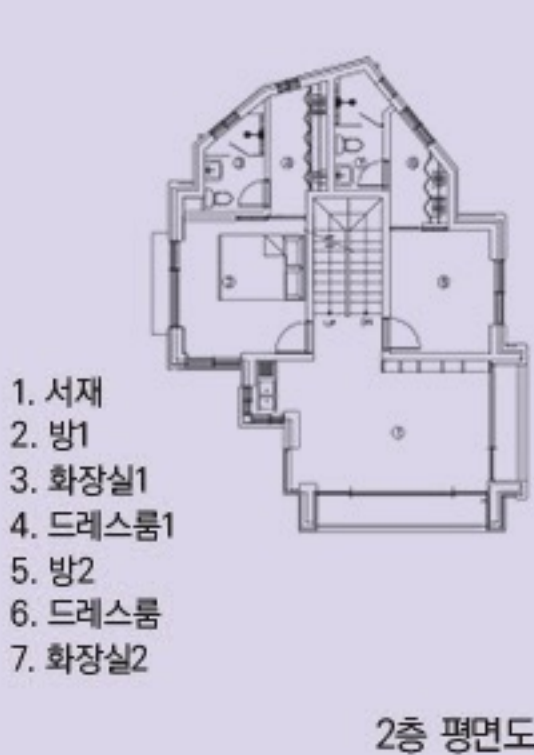
강진주택은 기능성과 심미성, 그리고 가족의 삶의 방식을 균형 있게 담아낸 주거공간으로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주거 가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2026년도 | 6월 실무교육 실시 공지

건축사법 제30조2, 영 제30조 규정에 의거 광주건축사회 2026년도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교육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1) 실시근거 :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
- (2) 실무교육 계획

일시	종류	과목	강사	장소	인정 시간	교육비	인원
6월 25일(목) 14:00~16:00	전문 교육	미래의 건축	강형주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광주 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	2시간	30,000원	150명
6월 25일(목) 16:00~17:00	윤리 교육	건축과 공간심리	박구용 교수 (전남대학교 철학과)		1시간	10,000원	150명

- (3) 교육대상 : 건축사
- (4) 신청기간 : 6월 24일(수)까지 /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
- (5) 출석인정
 - 매 과목당 교육시작 후 14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교육이 인정되며, 15분부터는 지각 처리되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교육비 환불되지 않음)
 - 매 과목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출석체크
 - 건축사등록원 등록카드를 이용하여 교육장입구에 비치된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하여 출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 (7) 수강신청 절차
 -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 접속
 - ② 협회 ID / PW 로 로그인
 - ③ 배너 위에 "수강신청" 클릭 ⇒ 실무교육 선택 ⇒ 과목명 클릭 후 결제
- (7)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0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공모

7월 31일까지 광주지역 우수건축작품 공모 접수



광주건축사회는 7월 31일까지 “제30회 광주광역시건축상” 공모를 진행한다.

“광주시 건축상”은 광주지역에서 건축 관계자를 시상하는 광주시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도시 경관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198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응모 대상은 건축사 업무등록을 한 자의 작품으로 최근 10년 이내(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사용승인된 사회공공부문, 주거부문, 비주거부문 건축물(각 부문별 리모델링 포함)에 한하며 작품접수는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A0 사이즈 작품판넬과 함께 7월 31일까지 광주건축사회 사무처(광주 북구 무등로 255 4층)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작품접수 마감 후에는 건축사, 대학교수, 건축직 공무원 등 건축 관련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패널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전체부문 대상 1점, 각 부문별 최우수작 1작, 우수작 1작 등 총 7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광역시 단일 지자체 명칭으로 개최되는 마지막 광주광역시 건축상인 만큼 지역 건축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간담회 개최

지난 27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광주건축사회는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설명과 관련해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유정석 팀장과 광주건축사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적용 기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실무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회원들은 개정안 적용에 따른 실무적 영향과 보완 필요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광주광역시는 향후 수립지침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건축사회, 광주교육청 ‘건설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청렴간담회’

공사관리 감독분야 제도개선 등 애로사항 전달...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6월 11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청렴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 관련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박진호·김민호 부회장, 장기숙 공공기관대응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최인주 시설과장을 비롯한 교육청 시설공무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양 기관 관계자들은 교육시설 공사 과정에서의 공사관리 및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광주건축사회는 공사관리·감독 분야의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전달하며 교육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필서 회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 「현장중심 건축 역량 강화 교육」 개최

남문 인쇄의거리 복합거점시설 신축 현장 방문...



광주 동구는 지난 10일 남문 인쇄의거리 복합거점시설 신축 현장에서 「현장중심 건축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김민호·박진호 부회장, 전홍현 동구협의회장

등 공사관계자 35여명이 참석해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조사위원회 노성열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구조도면을 활용한 중요 구조부 이해와 건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사례 및 구조 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어 남문 인쇄의거리 복합거점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시공 과정과 구조적 특징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건축 현장에 대한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필서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광주 동구청과 청렴 건축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전간담회 개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정책개발 협력 논의...



광주 동구와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6일 동구청 건축과에서 ‘광주 동구청-광주건축사회 청렴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렴한 건축행정 문화 조성 및 건축 인허가 과정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기관 관계자들은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건축법 해석 차이로 인한 민원과 인허가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앞으로 행정기관과 건축계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건축행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강필서 회장은 “청렴한 건축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기관과 건축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회원동정

회원현황 : 471명 (2026. 6. 10. 기준)

•입회

- 나영재 건축사 / 신안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화운로 171, 2층

•전출

- 김철균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흙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604호

•결혼

- 조연수 건축사 / 현대이엔지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6년 6월 20일(토)

- 서영배 건축사 / 문화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6년 6월 20일(토)

- 안성섭 건축사 / (주)우도종합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6년 6월 21일(일)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전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 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우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립공사

문현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더함
전남 여수시 도원로 270, 2층 / Tel. 061-682-7272



대지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17-4번지 외 1필지 / 대지면적: 2,984.80㎡ / 건축면적: 459.22㎡ / 연면적: 654.57㎡
건폐율: 15.39% / 용적률: 21.93% / 규모: 지상 2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섬유시멘트패널, 와이드벽돌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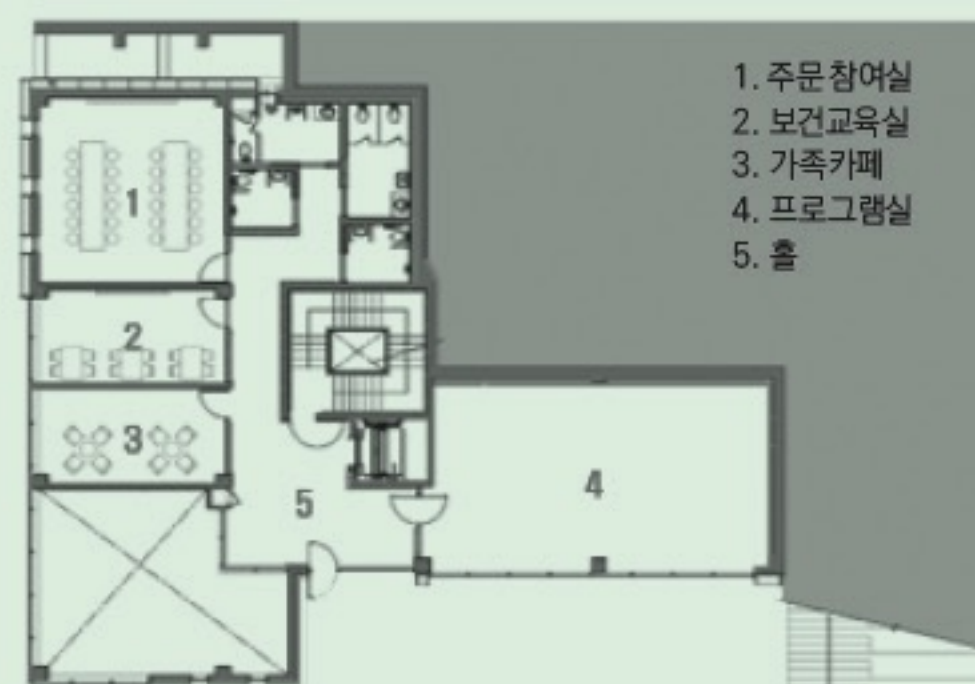
본 프로젝트는 증축건축물로서 주 위 공공건축물과의 연계에 그 초점을 두었다.

지형의 차이로 인한 접근의 제한 요소는 각 외부마당을 구성하여 연결함으로써 해소하였으며 지형적 맥락에 순응하는 매스계획을 통하여 입체적 공간 구성을 하였다.



1. 물리치료실
2. 진료실-2
3. 진료실-1
4. 기계/전기실
5. 치매조기검진실
6. 소독처리실
7. 창고
8. 로비

1층 평면도



1. 주문참여실
2. 보건교육실
3. 가족카페
4. 프로그램실
5. 휴

2층 평면도



KCMT와 SK 에코플랜트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발주처, 건축주

철근 대비 인장강도 2배
ESG경영우수선 (저탄소 제품)
건물유지보수 비용 절감
철근콘크리트의 취약점 해소
내부식성, 비자성, 내화학성,
부도체(열차단성)

시공사

중대재해 ZERO(낙하, 감전)
철근 대비 ¼ 중량(경량성)
획기적인 작업효율 향상
철근대비 시공 생산성 176%
물류비 절감
길이 별 납품 가능 (3m~15m)

설계(VE) 및 경제성 검토 문의 대환영!!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이형철근 대비 예산 절감)
- 한국도로공사 GFRP보강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국방부 "GFRP보강근" 신기술 우수제품 활용통보
- 공장, 창고, 근생주택, 축사, 수리시설 (농어촌공사), 조선소(항만) 특화자재

건축사

조달청 혁신/우수제품 지정
친환경 자재 (환경성적표지인증)
녹색기술 녹색자재 인증
시설물 생애주기비용(LCC)절감

근로자

중대재해 예방
근골격 질환예방(경량화)
작업 피로도 감소(열차단성)
감전 사고 예방(비전도성)
고용효과 증대(여성, 노년)



목포시 공영주차장



철골구조물(공장)



근생주택



조선소노반 기초

KECO 공식판매처

전국 T. 061-371-1233
F. 062-971-4896
M. 010-3484-2886

건축주/건축사/시공사/
대리점 문의 환영
www.kcmt.co.kr

전라남도건축사회, 역대 회장 정담회 및 친선골프대회 개최
회원 간의 상호 교류 도모를 위해 마련해...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지난 5월 13일 정남진 골프 리조트에서 역대 회장 정담회 및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역대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회원 간의 상호 교류를 도모하고, 건축사회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친선 골프대회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진 정담회에서는 건축사회의 발전 방향과 지역 건축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전남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역대 회장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건축사회의 단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통의 기회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건축사회, 김대중 교육감 선거캠프 방문
행정구역 통합추진에 따른 교육청 건축설계제도 발전방향 모색하기 위해 마련...



전남건축사회와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5월 18일 오후 2시 김대중 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건축사회 이경일 회장,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청 건축설계 제도의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양 건축사회는 광주·전남 지역의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건축계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지역 건축문화 발전과 안전한 교육시설 조성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2026년 전라남도 건축관계자 워크숍 개최
건축사 및 공무원 참석해 주거안전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전라남도는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도민의 주거안전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무원·건축사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라남도가 주최한 이번 워크숍에는 도 및 시·군 건축담당 공무원과 전남건축사회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 건축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다졌다. 워크숍 첫날에는 전남도 건축개발과가 ‘2026년 전라남도 건축행정 정책 및 주요 업무’를 소개하며 올해 건축 정책의 핵심 추진 방향과 주요 변동 사항을 공유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강연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백선경 강사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공공건축’을 주제로 최신 공공건축 정책 이슈와 동향을 설명했다. 도민 주거복지와 직결된 안전 및 최신 기술 대응을 위한 전문 교육도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문정범 강사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건축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주제로 건축공사 안전관리 방안과 주요 피해 사례를 분석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간연구원 남성우 강사가 ‘AI 기술 도입에 따른 건축분야 변화와 대응전략’을 통해 중앙정부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현황과 미래 건축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이번 워크숍이 건축 현장의 일선에 있는 공무원과 건축사가 함께 모여 도민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주거복지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남의 건축 문화를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공공건축공사 실무편람’ 제작 및 배포
개정된 관계법령을 반영해 행정 효율성 기대...



(사진 = 전남도청 제공)

전라남도가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담당 공무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건축공사 실무편람’을 제작·배포했다. 전남도는 지난 22일 최근 공공건축물에 대한 도민 눈높이가 높아지고 건축 행정 절차가 세분화·전문화됨에 따라 복잡한 법령과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편람을 제작했다. 이번 편람은 최근 개정된 관계 법령을 반영해 공공건축사업의 전 과정을 △기획 △설계발주 △설계 △공사발주 △공사시공 △유지관리 등 6단계로 구분해 정리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단계별 행정절차와 주요 유의사항 등을 세밀하게 담아 업무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전남도는 편람을 도와 22개 시·군 공공발주 건축공사 담당 공무원에게 배포하는 한편, 도민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남도 누리집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남건축사회, 상반기 건축사실무교육 실시
건축사 실무관련 AI 활용 기본·심화교육을 통해 역량강화...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5월 27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과 5월 28일 전남여성가족재단 2층 공연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축실무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이관용 건축사(㈜이관용건축학교 대표)가 강사로 나서 건축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과 적용 사례를 소개했으며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설계 및 업무 효율화 방안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으며, 건축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법을 공유했다. 전남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 회원동정

회원현황 : 485명 (2026. 6. 10. 기준)

•입회

- 이찬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찬 / 전남 순천시 하룡1길 18-8, 202호
- 정세영 건축사 / 기술사건축사사무소 결 / 전남 여수시 웅천남4로 17

•전입

- 한서호 건축사 / 명준원세 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화보로 4066-55, 3층
- 주 창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태건 / 전남 나주시 교육길 13, F동 206호

•변경(소재지)

- 고미라 건축사 / (주)케이엠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산실 43, 상가동 3층 301호
- 선유정 건축사 / 누리잇다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교육길13, D동 1-409호
- 김용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다움 / 전남 여수시 도원로 157

•결혼

- 김예은 건축사 / 로그 건축사사무소 / 본인결혼 - 2026년 6월 13일(토)
- 박성수 건축사 / (주)가야 건축사사무소 / 본인결혼 - 2026년 6월 20일(토)
- 정종민 건축사 / 명인 건축사사무소 / 자녀결혼 - 2026년 6월 20일(토)

•부고

- 이정심 건축사 / 가인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6년 5월 1일(금)
- 이강근 건축사 / (유)신구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6년 5월 11일(월)
- 이완희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공간 / 모친상 - 2026년 5월 29일(금)
- 심우석 건축사 / 우성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6년 5월 29일(금)
- 유장기 건축사 / 에이원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6년 6월 3일(수)

운곡마루유치원

엄황섭 건축사 / 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1길 12-6 / Tel. 063-223-7636
엄지민 건축사 / 유엠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1길 12-6, 402호 / Tel. 063-223-7636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 1134번지 / 대지면적 : 2,500.0㎡ / 건축면적 : 1,412.954㎡ / 연면적 : 2,767.995㎡ / 건폐율 : 56.52% / 용적률 : 99.66%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유치원)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알루미늄 시트, 점도벽돌, 루버강판, 알루미늄 단열창호



운곡마루유치원은 단순한 교육 시설을 넘어, 아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작은 마을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양한 교육·놀이·커뮤니티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 구성은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설계 철학을 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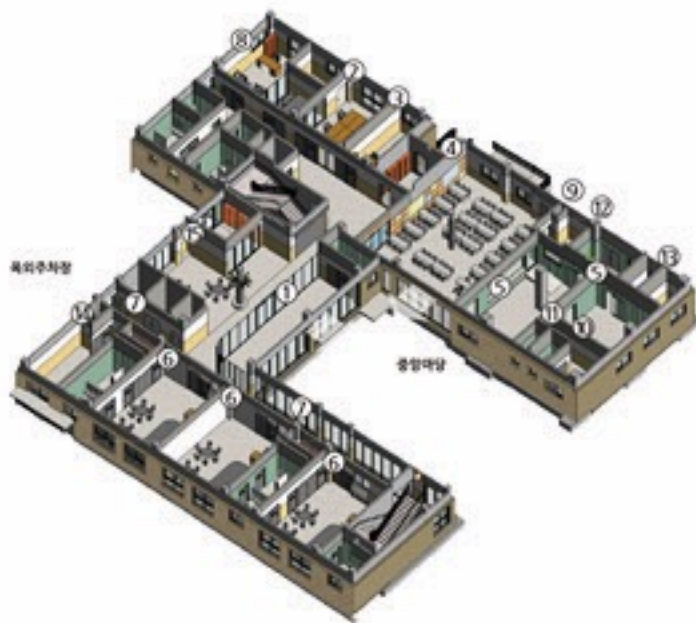
본 유치원은 완주 운곡지구(완주북합행정타운) 중심부에 위치하며, 요구되는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에 비해 협소한 필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생태 면적 확보와 인근 주거지역과의 조화를 중요한 설계 요소로 고려하였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 구성과 외부 환경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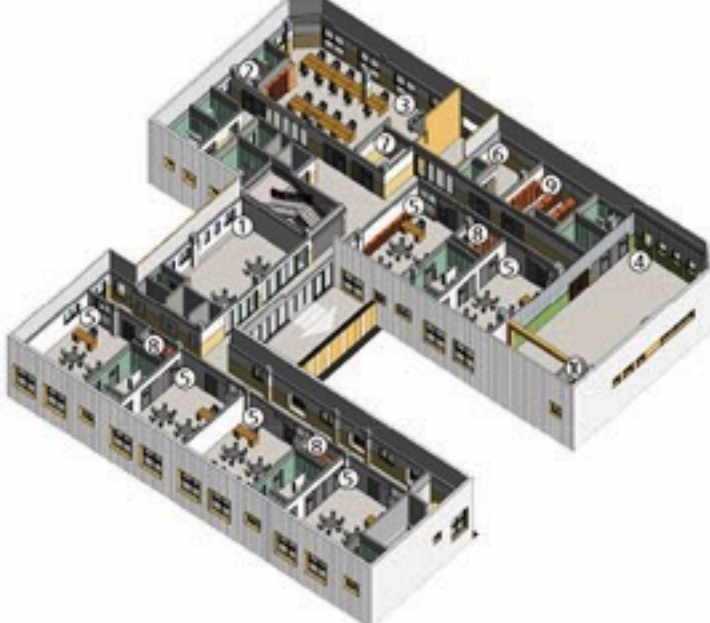
- ① 계단실
- ② 기계실
- ③ PIT
- ④ 창고

1층 평면도



- ① 돌봄교실
- ② 행정실
- ③ 보건실
- ④ 식생활관(식당)
- ⑤ 식생활관(조리실)
- ⑥ 일반학급
- ⑦ 교구실
- ⑧ 원장실
- ⑨ 영양사실
- ⑩ 휴게실
- ⑪ 세면실
- ⑫ 전차리실
- ⑬ 창고
- ⑭ 교직원회의실
- ⑮ 유학실

2층 평면도



- ① 특별교실
- ② 세탁실
- ③ 교사연구지원실
- ④ 다목적강당
- ⑤ 일반학급
- ⑥ 교직원회의실
- ⑦ 간식준비실
- ⑧ 교구실
- ⑨ 유아자료실
- ⑩ 조장실



회원알림

최근 광주·전남·전북 지역 내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사한 요청을 받을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피해사례-1

설계, 입찰공고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접근한 후, 특정 업체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며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

주요 피해사례-2

학교나 관공서 관계자를 사칭하여 명함을 발송한 후, 제3의 업체 물품을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속여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공공기관 다른 업체 물품을 대리구매 요구하는 수법

대응 요령

1. 기관 대표전화 및 공문서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2. 발신자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진위 여부 확인
3. 의심스러운 링크(URL) 및 첨부파일 열람 금지
4. 금전 요구시(계좌이체 등) 즉시 대응하지 말고 기관에 재확인

전북도 감사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청렴 거버넌스 간담회 개최 건축설계용역과 공공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주 건축사회관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청렴 거버넌스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설계용역과 공공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과 이성열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을 비롯한 건축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절차와 업무 협의 체계, 청렴정책 체감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감사위원회는 2026년도 감사 운영 방향과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공직자 부패행위 익명신고센터 운영 현황 등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건설행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 필요성, 민관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제안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향후 감사업무와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북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행정과 건축계가 상호 이해를 높이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지역건축사회, 불공정 계약 개선 및 설계대가 정상화 방안 포럼 개최 설계대가 누락 문제 등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 마련...



(사진 = 전주지역건축사회 제공)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박광성)는 4일 전북건축사회관에서 건축관련 용역 불공정 계약과 설계대가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공공·민간 건축 용역에서 반복돼 온 불공정 계약 관행과 설계대가 누락 문제를 공론화해 실제 계약내용과

용역비 산출내역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사법에서는 공공발주사업의 경우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해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심의 대응, 인증 협의, 설계변경 검토, 사후설계관리 등 전문 업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해 발주하고 있으나 설계용역비 산정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도 구두계약, 축소계약, 설계비 미지급, 추가업무 미정산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입찰 방식으로 공공발주 설계용역을 수행한 A 건축사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업무에서 이 같은 문제를 겪었다며, “과업지시서에는 BF 업무가 들어가 있었지만, 정작 설계비에는 빠져 있었다”며 “발주처는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관행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BF 인증 업무는 별도의 협의와 자료 작성, 보완 대응이 필요한 전문 업무인 만큼 실비정산 등으로 대가에 반영돼야 한다. 이 같은 사례의 경우 필요한 업무는 과업으로 요구하면서, 그 비용은 관행을 이유로 제외한 셈이다.

또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은 대가 없는 전문 업무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과업과 대가가 일치하지 않는 계약은 시작부터 불공정할 수 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건축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박광성 회장은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업무를 설계비 산정에서 빼는 것은 행정 착오가 아니라, 전문 업무의 비용을 건축사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주지역건축사회는 포럼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사례를 수집해 발주기관 협의와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정당한 대가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제32회 졸업작품전 개최

제주를 주제로 연구·설계한 건축 프로젝트 40점을 선보여...

전주대학교 건축학과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2전시장에서 제32회 졸업작품전 ‘Tourism non Tourism’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졸업예정자 40명이 참여해 제주를 주제로 연구·설계한 건축 프로젝트 40점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인 ‘Tourism non Tourism’은 관광지로 소비되는 제주를 넘어 지역이 지닌 고유한 장소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기획됐다. 학생들은 제주 전역의 40개 대상지를 직접 답사하고 조사·분석한 뒤, 지역의 특성과 맥락을 반영한 건축적 해법을 제안했다.

출품작은 소셜 커뮤니티 시설, 안내센터, 연구소, 보전시설, 생태거점 등 다양한 건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관광과 비관광의 경계를 주제로 제주 지역의 도시와 자연, 역사, 관광 자원을 건축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을 담고 있다.

특히 작품들은 개발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의 삶과 기억, 자연환경과의 관계에 주목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건축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본격화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



(사진 = 군산시 제공)

전북 군산시가 도시 전반의 공공디자인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영역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디자인 기준과

실행전략을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 요구가 다양화, 고도화됨에 따라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공공디자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현황 분석과 개선 방향 도출, 시민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과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은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군산시민의 특색을 반영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회원동정

회원현황 : 528명 (2026. 6. 10. 기준)

• 퇴회

- 정용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세운건축

• 결혼

- 박충식 건축사 / 현민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6년 5월 16일(토)
- 홍영식 건축사 / 하늘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6년 5월 17일(일)
- 이호안 건축사 / 대화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6년 5월 30일(토)
- 김형노 건축사 / 선형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6년 6월 14일(일)

• 부고

- 허 방 건축사 / 방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6년 5월 25일(월)
- 노현희 건축사 / 아키엔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6년 5월 30일(토)
- 최순호 건축사 / (유)세움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6년 6월 08일(월)



반석기초이엔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팽이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설계의도구현, 건축의 가치를 완성하다.

2018년 8월 14일 건축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25조의1(공사감리)의 제12항은 허가권자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설계의도구현이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이 개정으로 설계의도구현은 공공건축물만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민간건축물에도 의무화가 되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까지 민간건축물에 적용되는 설계의도구현 계약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건축은 설계도서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작업이 아니다.

오히려 건축물이 실제로 지어지는 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이 건축물의 품질을 좌우한다.

설계의도구현 제도는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설계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건축물이 처음 계획한 가치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건축사는 건축주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대지의 조건과 주변 환경을 분석해 공간을 계획한다. 설계도서에는 다양한 요소가 담겨 있지만 모든 내용을 도면에 완벽하게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 공사 과정에서는 자재 수급 문제, 시공성 검토, 예산 조정, 현장 여건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며 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때 설계자의 참여가 없다면 당초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별적인 변경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반복되면 결국 건축물 전체의 완성도와 공간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설계의도구현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설계의 핵심 가치가 현장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마감재 검토, 색채계획 검토, 설계변경 검토, 현장 기술 자문 등 다양한 업무가 포함된다.

이는 단순히 설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아니라 건축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기술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건축법 개정 이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에도 설계의도구현이 적용되면서 공공건축에 국한된 제도가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 그리고 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설계의도구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설계가 끝나면 건축사의 역할도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며 설계의도구현 업무 또한 단순한 부가서비스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좋은 건축은 좋은 설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설계자가 마지막까지 참여하여 설계의도를 구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건축물은 계획된 가치와 품질을 담아낼 수 있다.

앞으로는 설계의도구현을 비용이나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건축과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회 위원 일동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기술인 종합교육기관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보수교육

“해체감리업무를 위한 실무교육
세종·충남·충북·대전권 접근 편리”

세종

전주

광주

광양



세종·전주·광주·광양
편리한 교육 접근성!

교육 특징



기본교육·최초교육·
승급교육·계속교육
체계적인 교육과정



실무 중심의 전문 강사진
이론 + 현장 실무
노하우 전수



국토교통부 지정
공신력 있는
전문 교육기관

전문성으로 **안전**을 지키고,
교육으로 **가치**를 더합니다.



재단법인 대원산업기술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일정확인 | <https://www.hicte.or.kr/>



교육문의 | 062-513-0116

청계면 도시재생 두:드림 스토어 신축공사 건축 설계공모

실전 창업을 위한 테스트 매장 조성으로 지역 특산물 연계 및 F&B 분야의 이색 상업 공간 마련과 협동조합, 디지털 창업자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조직 거점 및 협력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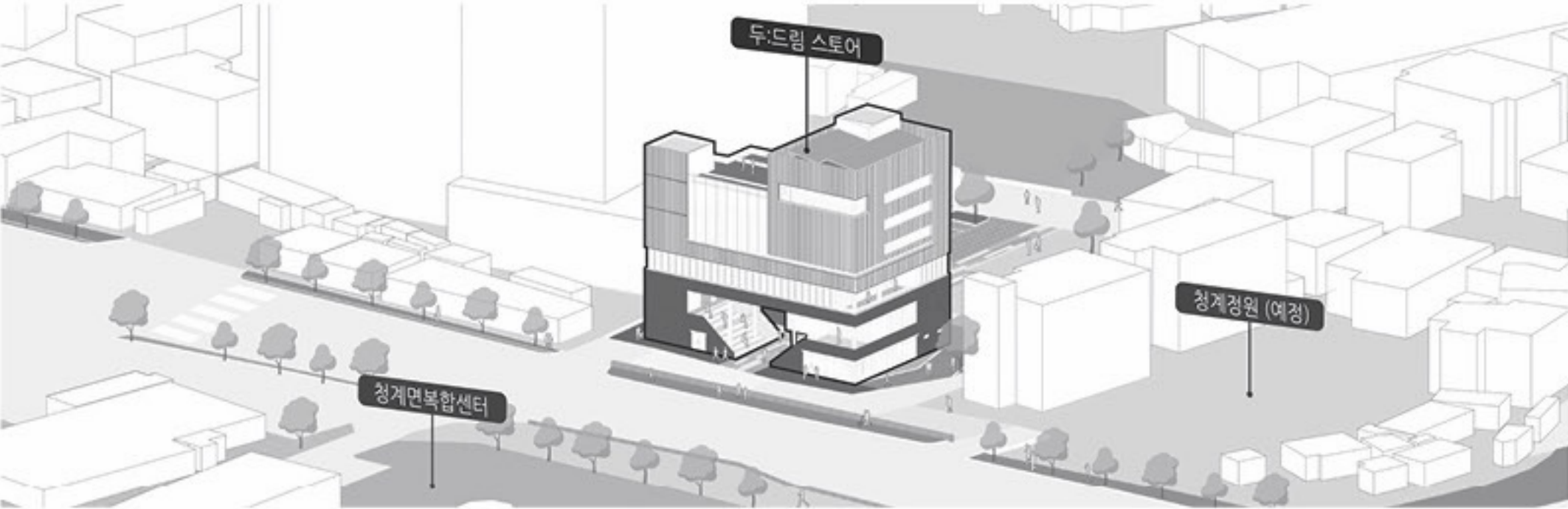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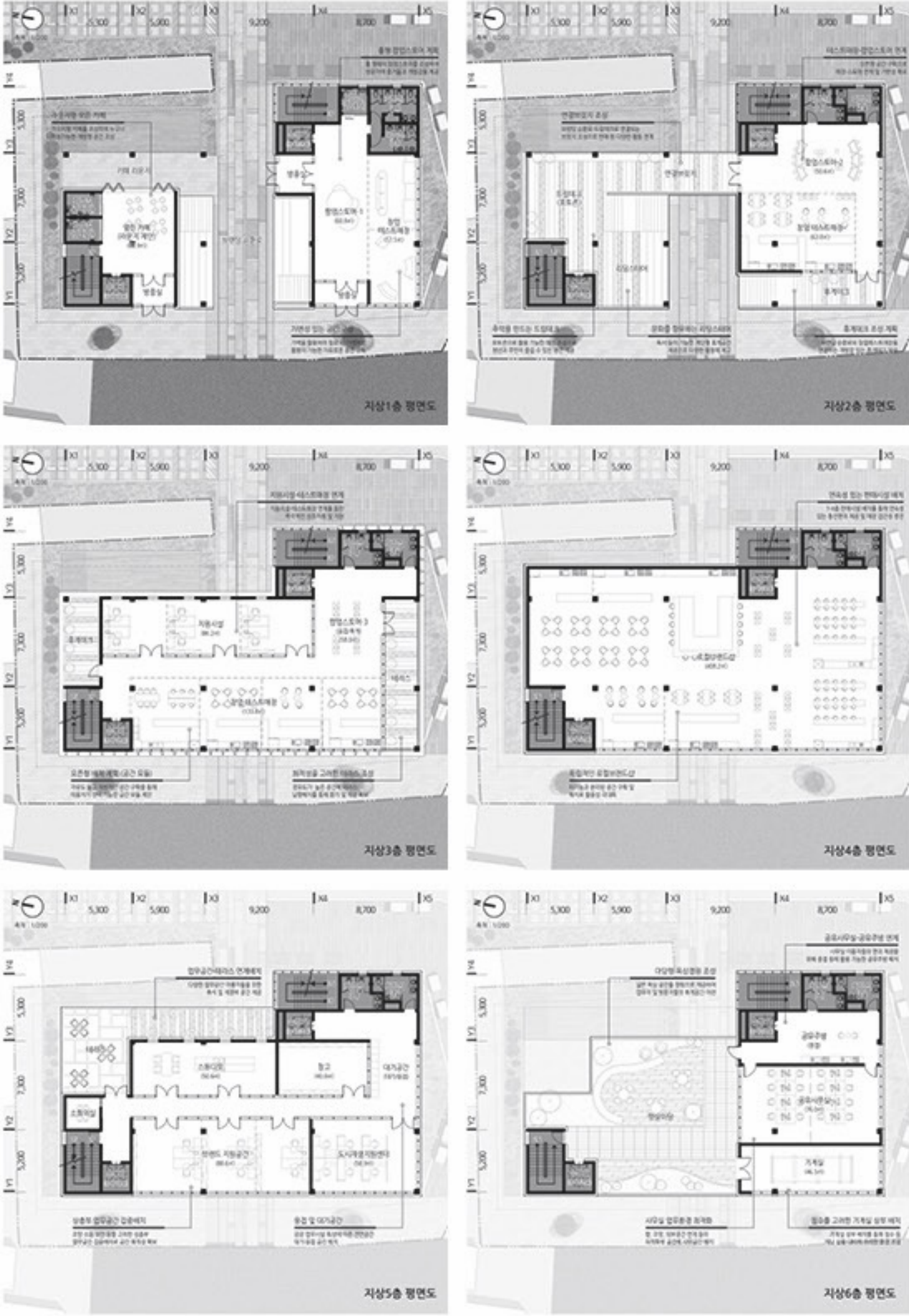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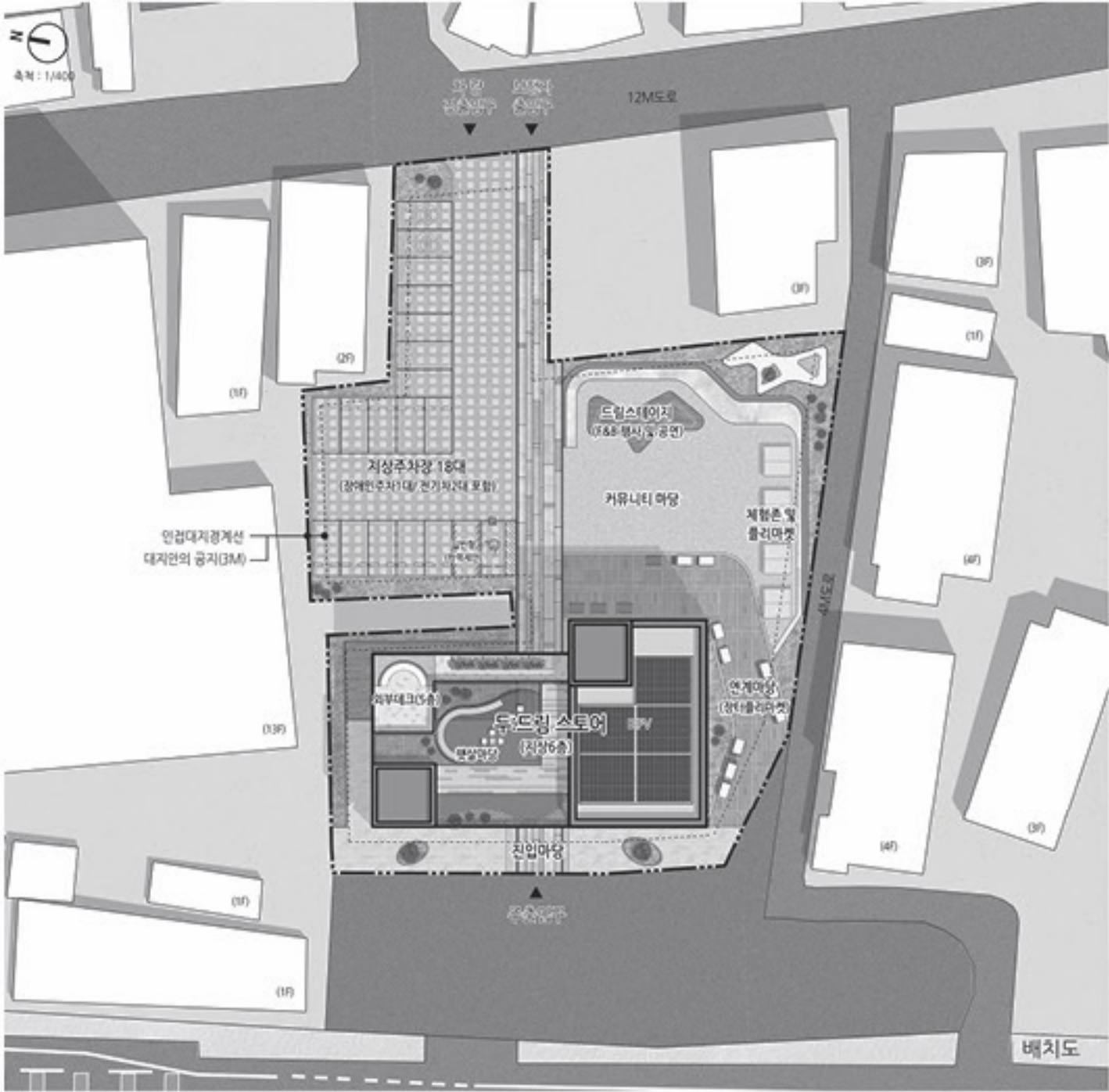
심사위원 : 강형주(조선대학교), 노준석(원광대학교), 문일환(다운건축사사무소), 박상구(청주대학교), 심정열(오월건축사사무소), 임재호(대전대학교), 장지숙(건축사사무소해람)

- 대지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437-3 외 4
 - 대지면적 : 2,188.0㎡
 - 건축면적 : 478.2㎡
 - 연 면 적 : 1,949.7㎡
- 규 모 : 지상 6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용 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주요마감 : 치장벽돌, 라인금속패널, 로이복층유리

당선작
최규선 건축사 / 제일 건축사사무소



청계·목포대학교 등 다양한 이용자와 함께 누리는 열려있는 배치계획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꽃잎의 시간

동그란 화분 가장자리

흙의 숨결 위에 서 있었던 계절

한 송이 두 송이

봄을 품던 얼굴들이

말없이 내려앉는다

바람은 건드린 적 없고

햇살은 붙잡을 줄 모르니

몸체에서 떠남은 자연의 일

손바닥만 좁은 세상에서

온 정열을 피워낸 너는

이제 가벼워지는 법을 안다

하얗게 떨어진 자리마다

향기만 남겨두고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

나는 말없이 떨어진 너를 보고

지지 않는 것을 배우지 않고

잘 놓아주는 법을 배운다

오늘도 한 잎 한 잎

말없이 자신의 생을 마치는

바닥에 떨어지는 꽃잎을 본다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풍경으로의 건축

김용관 / 마음산책 / 2026. 04. 15.



건축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흔히 설계와 공간 구성, 그리고 건축가라는 직업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한다. 나 역시 건축학과에 입학한 이후 자연스럽게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는 미래를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풍경으로의 건축>은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설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책이었다. 이 책은 36년 동안 한국 건축의 현장을 기록해 온 건축사진가 김용관의 첫 사진 산문집으로, 건축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을 담고 있다. 저자는 건축사진을 단순히 건물을 촬영하는 작업이 아니라 건축가의 철학과 시간, 그리고 공간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책을 읽으며 건축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 역시 조금 더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평소 나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공간을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들게 된다. 특히 건축물을 촬영할 때면 단순히 건물의 전체 모습보다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나 창문 너머의 풍경, 건물과 주변 환경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더 관심이 있다.

저자는 책에서 “건축사진은 건축물을 기록하는 일이 아니라 그 건축물을 만들어낸 사람의 시간과 의지를 기록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이 문장이 다소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책을 읽어갈수록 건축사진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하나의 해석이자 또 다른 창작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건축은 완공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과 계절, 날씨와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계속 변화한다. 건축사진가는 그러한 순간들을 포착하며 건축이 가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같은 건축물이라도 누가, 언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건축의 영역이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것이었다. 건축학과 학생들은 흔히 설계사무소 취업이나 건축가라는 직업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김용관 작가의 삶은 건축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준다. 그는 건물을 설계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한국 현대건축의 역사를 기록해 왔다. 실제로 그는 1990년대 한국 현대건축이 활발하게 발전하던 시기부터 현장을 기록해 왔으며, 그 가치가 인정되어 국립현대미술관에 약 1만여 점의 슬라이드 필름을 기증하기도 했다. 만약 그의 사진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보는 많은 건축물의 모습과 그 시대의 건축적 분위기도 함께 사라졌을지 모른다. 건축을 남기는 방식이 설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과 아카이브, 사진과 비평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 부분은 특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건축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건축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진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더욱 특별한 책이었다. 그동안 취미라고 생각했던 사진이 어쩌면 건축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축물을 설계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고 해석하며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역시 건축 문화의 중요한 일부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풍경으로의 건축>은 건축사진가의 회고록이자 한국 현대건축의 기록이며, 동시에 건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안하는 책이다. 저자는 36년 동안 건축을 기록하며 결국 사람과 시간, 그리고 관계를 기록해 왔다. 책을 덮고 나니 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기억이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풍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건축가라는 직업만 바라보기보다 건축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은 나에게 건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 동시에, 앞으로의 진로와 관심사를 더욱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 의미 있는 책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다.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작 / 순천대학교



토론토 시청사 및 네이션 필립스 광장 (Viljo Revell, 1965)

캐나다 토론토 / 2026년 5월 6일